

조선대 평생교육원서 강의하는 코미디언 김병조씨

웃음 주는 명심보감 전도사 그 입담 그대로 '제2전성기'



장성 출신 코미디언 김병조씨가 28일 조선대 평생교육원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고 있다. 김씨는 매주 수요일 광주를 찾아 80여명의 교육원 수강생과 200여명의 조선대 학생들에게 옛 선현들의 글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나명주 mjna@kwangju.co.kr

지난 90년대 특유의 떠는 목소리로 "나가놀아라~"를 유행시켰던 장성출신 코미디언 김병조(56)씨가 광주에서 '명심보감(明心寶鑑) 전도사로 제2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는 "명심보감을 네 마디로 즐기면 '너 나 잘해'와 같다. 한자 천 단어 외우는 것 보다 실전이 중요하다"면서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부모가 바른 행동을 보여야 애들이 복 받는다"고 강의를 시작했다.

이날 수강생들의 면면도 다양했다. 이을주(67·광주시 전국 각지 수강생 200~300명 몰려 수업 없는 날 군부대 등 순회 강의로 '고향 사람들과 정 나누는 일 즐거워'

주월동)씨는 "장년을 한 뒤 인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강의"라며 3년째 아내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 승훈(43·순천시 송광면)씨는 어머니 김사순(73)씨를 모시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모범생이다. 또 훈장 김병조씨를 만나기 위해 충북 청주에서 먼길을 마다하지 않는 열혈학생도 있다.

지난 1998년 TV 활동을 접은 그는 같은해 9월부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9년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명심보감 강의를 해오고 있다. 그의 입담과 강의는 이미 입소문이 퍼져 선착순 50명 마감의 평생교육원 수업(1학기 16주 수강료 11만원)의 경우 이번 학기엔 정원을 80명으로 늘릴 정도로 호응이 뜨겁다. '학점이 짜다'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학부 교양수업은 매 학기마다 200~3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수강신청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사람 웃기는 그의 재주는 지금도 여전하다.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 착한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심보감 첫 대목인 계선편(繼善篇)의 '계(繼) 자(字)'를 설명하면서 "이를 계, 실을 잇잖아"라며 교탁 위에 밧을 올린 뒤 마치 밧실을 하듯 밧을 바르듯 오르내리듯 무릎에 비비자 강의실은 이내 웃음바다가 됐다.

지독한 신용카드사

목포서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압류 물의

한 신용카드회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최저생계비를 압류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목포 상동 우체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최모(여·36)씨의 최저기초생활지원금 지급 통장에 대해 모 신용카드 회사가 가압류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10월께 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우체국 통장을 통해 60여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 최씨는 이 돈으로 최씨는 3남매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에서 봉어빵 장사도 했다. 하지만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진 카드빚 3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카

드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아왔고, 지난 20일에는 생계비 지원 통장 가압류라는 청천벽력같은 우체국의 통보를 듣게 됐다. 최씨는 "돈이 있으면서 안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의 밥줄과 같은 생계비마저 가져가려 했다는게 더욱 슬프고 충격적이다"고 하소연했다. 통장 압류로 자신들의 학비와 생활을 찾을 수 없게 된 최씨의 딱한 사정이 우체국과 목포시청 등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카드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카드사는 30일 우체국 측에 가압류 해지 통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이상규기자 ish@kwangju.co.kr



세계의 꽃 한자리에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국제꽃박람회'에 참가한 관람객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각각의 꽃 정원 등 14개 테마존과 5천송이 50만송이의 꽃이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는 4월8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하룻새 날치기 7건 '치안 구멍'

노래방 강도 특별방범속 오토바이 날치기범 활개

광주 도심에서 29일 밤부터 30일 낮까지 하룻새 여성 7명이 잇따라 날치기를 당했다. 경찰이 노래방 강도를 잡기 위해 특별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날치기범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다. 30일 낮 1시3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D아파트 앞에서 김모(여·41)씨가 오토바이를 탄 2명의 남자에게 현금 10만원 등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했다. 1시간 20여분 전에는 북구 두암동 S할인점 앞에서 정모(여·45)씨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겼고, 낮 12시5분에는 남구 봉선동 B시장 입구에서 김모(여·45)씨가 현금 6만



이밖에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께 동구 계림동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모(여·61)씨가 오토바이를 탄 20대 2인조에게 30여만원, 26일 밤 11시45분께 동구 산수동 S 꽃농원 앞길에서 박모(여·32)씨가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현금 5만원을 빼앗겼다. 경찰은 "단독 범행이 3건, 2인조 범행이 4건이고 용의자의 인상착이가 각기 다르다 등 동시다발적으로 범행

오늘 천동·돌풍 동반 최대 50mm 비

주말인 31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천동 번개가 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31일 오전부터 비가 내려 오후 늦게 개겠다"고 밝혔다. 주말 강수량은 60~90%, 예상강수량은 10~30mm로 곳에 따라서는 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말 비가 그친 뒤에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지방에서 발달한 황사가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황사는 휴일인 다음달 1일까지 지속 될 전망이다. 휴일인 4월 1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Weather forecast section for March 31st,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 map of Korea, and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

주부 납치 2인조 강도

광주 남구...800만원 빼앗기고 5시간만에 풀려나

광주시내에서 노래방·편의점 강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0대 주부가 강도 2명에게 납치된 뒤 금품을 빼앗기고 5시간 만에 풀려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새벽 0시께 주부 이모(40)씨가 남구 C점질방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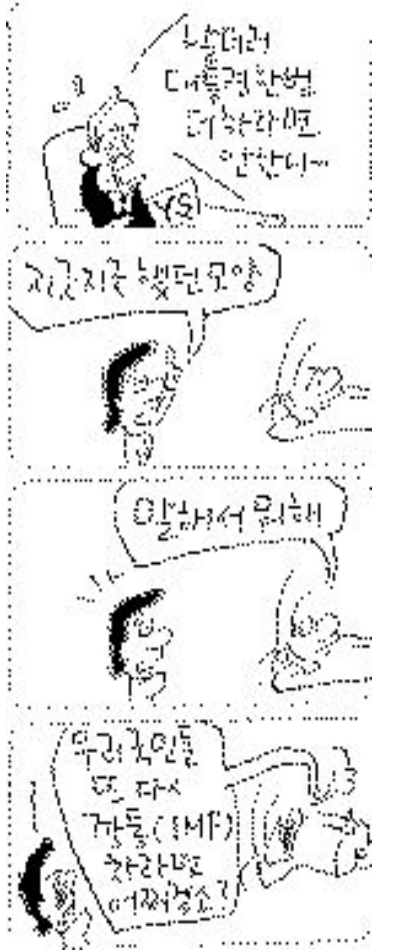
자신의 승용차에 타는 순간 20대 과한 2명이 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이씨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수표와 현금 등 200만원을 빼앗겼다. 범인들은 이씨를 차에 태운 채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다 이씨의 신용카드를 들고 남구 C점질방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뒤 5

시간만인 새벽 5시께 A씨를 납치한 썬타uner 인근에 풀어준 뒤 달아났다. 경찰은 현금인출기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보해 용의자 추적을 나서고 있으나, 용의자들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는 등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천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모 환경 전문지 기자 임모(3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광주 서구 모 환경산업에 찾아가 협박, 돈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091) 김장두



광주전도서의 중점특장을 누리는 3.31 최대전망! (광명신문 4·5면면 표제지 표기) 수권신청서 피오래 062) 367-9000

수배여성 성폭행 경찰 구속

광주 북부경찰은 30일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20대 여성을 붙잡아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장모(37)경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경장의 동료인 주모(42) 경사에 대해서도 검거한 수배범을 관할 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술을 마신 혐의(직무유기)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경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께 사기혐의로 수배중인 이모(여·25·광주시 북구 오치동)씨를 붙잡은 뒤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경찰관 2명과 달성경찰서장, 수사과장, 강력팀장 등 5명을 직위 해제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선암사 내분 2리온드

태고종 '새주지 인정 못해'

지난달 열린 전산총회로 선출된 선암사 주지에 대해 태고종 총무원 측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태고종림(太古叢林) 선암사 사태가 새로운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재직승들이 제2대 주지 설운(雪雲·61) 스님을 대한 취임식을 했지만, 총무원측은 설운 스님을 새 주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불참했다. 설운 스님은 지난달 13일 재직승 전체 169명 중 105명이 참가한 재직승 전산총회에서 60표를 얻어 호명(44표) 스님을 누르고 주지에 당선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내기 당구 지자 주먹으로 분풀이

○내기 당구에 서진 30대가 상대 방과 주먹으로 승부를 벌이려다 경찰에 입건.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29일 밤 11시께 1~2시간 전 내기 당구에서 자신을 이긴 정모(34)씨를 남구 봉선동 M맨션 앞으로 불러내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정씨가 경기 도중 게임 결과를 잘못 계산했다고 큰 소리로 반박을 취 자존심이 상했다"며 "집에 갔으나 화가 풀리지 않아 '맞장'을 뜨려고 왔는데, 정씨가 그냥 가라고 해 화기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